



벚꽃에 취한 광주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9일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벚꽃길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꽃을 감상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서해안 비 밤엔 들풍 동반

10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강수확률 60~90%, 예상 강수량 20~40mm)가 내리겠다고 광주기상청이 9일 예보했다.

이번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 제19대 총선이 치러지는 11일 아침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밤부터 모레 새벽사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간에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지방의 낮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11일에는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낮은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되겠다.

서해와 남해상에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사이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황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7분 해질 19시 01분

달돋이 19시 01분 달질 08시 26분

봄비 내리고

차차흐려져 오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구름많음	12/18°C
목포	구름많음	12/17°C
여수	구름많음	13/15°C
나주	구름많음	11/18°C
완도	구름많음	12/16°C
구례	구름많음	10/17°C
강진	구름많음	11/16°C
해남	구름많음	11/16°C
장흥	구름많음	10/16°C
순천	구름많음	13/17°C
영광	구름많음	12/18°C
진도	구름많음	11/18°C
전주	비	12/18°C
군산	비	9/16°C
남원	비	10/17°C
홍산도	비	11/13°C

〈오전〉 바다

종항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1.0~2.0m	

〈오후〉 바다

종항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목포 04:40 09:4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목포 16:41 21:5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여수 11:23 05:2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목포 00:00 17:21

◇주간날씨

날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4/16	5/16	6/17	7/19	8/20	10/20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대형마트 건축허가 취소 관련 12일 선고

북구청-이마트 공방 주목

“반려는 정당” “절차상 하자”... 2라운드 공방 예고

광주 북구청과 이마트의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법정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12일)를 앞둔 9일 현재까지도 이번 소송의 핵심사안인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의 정당성 놓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자 고치면 돼 VS 위법 드러나 =이마트는 여전히 광주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라는 북구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애초 건축허가가 민원으로 불허됐다다 소송 끝에 허가된 것인데 다시 감사를 통해 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허가 과정상 하자는 설계변경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구청이 “건축행정 질서의 확립”이라는 사유로 허가를 취

소했다고 하지만 건축행정 질서를 위해선 허가취소 보다는 시정조치가 옳다는 주장이다.

북구청의 입장은 완고하다.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여론과 인근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설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시정조치 보다는 원인무효인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감사를 벌인 결과 허가를 요청한 건물이 운동지역을 어겼고, 건폐율·용적률을 지키지 않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절차상 하자 VS 기본 요건 못 갖춰 =이마트는 북구청의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등록 신청의 반려는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다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구 조례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

서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권한을 넘어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구청이 반려 사유를 제시한 등록 요건을 위한 서류 등 보안요구 미이행도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북구청은 등록 당시 조례에 따라 이마트에 서류 보안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감사결과 위법이 드러난 판매시설 자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의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이를 근거로 한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해왔다”며 “법정의 판결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중·고 원어민 강사 배치 전남교육청 ‘중국통’ 키운다

전남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대거 배치해 중국어 특화 교육에 나섰다.

전남의 중국어 원어민 강사 62명은 중국 정부의 검증·추천을 거친 교사자격증 보유자들로, 중국과 전남의 교류를 주도할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300만원을 지원받아 중국 원어민 62명을 방과후강사 및 원어민 보조교사로 채용, 초·중·고교에 배치했다.

강사 38명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24명은 중·고교에서 제2외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교직원 외국어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단에서 중국어 학습기반을 끌어올림으로써 국제교류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원어민 강사를 대거 배치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청하고 중국정부가 추천해 한국에 온 원어민 강사들은 모두 140명으로 이 가운데 62명이 전남에서 근무한다.

중국측은 이들에게 입·출국 항공료 전액과 한국 체류기간(1년) 생활보조금 7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중국어 활성화에 대한 열정을 평가받아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강사 인원을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남대, 목포대학교와 중국 문화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 학생들이 원어민에게 생생한 외국어를 배우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활성화

유관기관 연계 17개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문화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올해 교과부가 추진하는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공모에 선정됐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광산구 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스포츠, 문화, 음악, 직업기술, 과학분야 등 총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

히 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 분야는 추후 심화 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직업설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숙하고, 차분하고 차치로, 클래식다 락방,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농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편 학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광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도 운행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CJ 이재현 회장 미행

삼성직원 5명 검찰 송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직원의 미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중부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 등 총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해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들이 선불폰과 렌터카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CJ그룹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CJ 이 회장 집 주변을徘徊하며 이 회장의 출입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2012.4.10

60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자격사항

직종	업무분야	근무지	자격요건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재무, 회계, 자금조달, 운용	[공통] - 동종업계 해당분야 경력자 - 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우대
	총무팀	-인사, 노무, 교육, 서무	
영업지원본부	수주영업팀	-공공부문 최저가 도목, 건축입찰 견적업무	-병역필,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걸림 사유가 없는자
기술지원본부	토목팀	-도로, 택지, 농업토목, 터널, 교량, 항만 및 PQ공종 경력기술자	[제출대상] - 일원 : 해당경력 10년이상 경력자 - 경력 : 해당경력 3년이상 경력자 - 신입 : 관련학과 전공자
	건축조경팀	-공통주택, 공공청사등 A/S유경험자	

2. 모집인원

- 각 직종별 00명(일원 0명, 경력 및 신입 00명)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최종학교졸업 및 성적 증명서
- 경력기술서 및 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최종합격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2년 4월 10일 ~ 4월 20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6 송원빌딩 7F 금광기업(총무팀) (501-853)
- 문의전화 : 062)239-8124

6. 기타

- 이력서 우측상단에 응시직종, 희망근무지, 연락처, 희망연봉 기재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함함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채용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지원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시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금광기업주식회사
http://www.gumgwang.co.kr



지구를 보며
우리는 자연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금광기업

대한민국이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이 대한민국을 대표 할 것입니다. 지구 속에 숨겨진 넘치는 가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일, 이제 자연과 하나되는 금광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아가겠습니다.